「오카야마 시장 메일 메거진(94)」 2017 년 11 월 30 일 호

【비젠 오카야마 번과 고대 키비의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음】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.

이번엔 여러분께 오카야마현에 거주하는 소설가, 아동문학작가로서 유명한 아사노 아츠코 선생님이 집필한 단편집 『오카야마 번 이야기, 키비의 바람을 맞으며』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

이 단편집은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드라마틱한 매력적인 내용이 되도록 아사노 선생님께 집필을 부탁드린 것으로 3 일 전에 발행된 신작입니다.
테마는 지역의 역사, 문화자원을 살려 「비젠 이케다 가문과 군다이(중세의 수호대의 명칭)의 츠다 나가타다의 국가만들기」「고대 키비국의 번영」으로서 아사노 선생님은 각각 3 편씩 6 편의 단편을 집필해 주셨습니다.

내용은 이케다 미츠마사와 츠나마사 부자의 영주로서의 갈등과 오키신덴 간척의 완성을 위해 제물로 몸을 바친 한 여성의 이야기 모모타로 전설의 도깨비 모델이 되었던 우라와 그 아내 아조메와의 슬픈 사랑이야기 등 독자가 질리지 않게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등장 인물은 모두 매력적이고 심금을 울리게 생생하고 촉촉하게 그려져 있습니다

저는 이 단편집을 읽고 지금까지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이 아사노 선생님의 손에 의해 사람의 숨결과 현장의 풍경까지 보이는듯한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, 이른바 생명을 불어넣은듯한 느낌을

받으며 몸 전체가 오싹하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.
또한 담당 직원의 한사람은 읽을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.

그리고 이 단편집의 완성을 기념해 열린 아사노 선생님과의 대담에서 선생님이「저는 오카야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까지 지역의 역사에 대해 별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.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끌려갔다.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, 오카야마를 새로운 눈으로 재 검토할 수 있었다. 꼭 다시 오카야마를 소재로 한 책을 쓰고 싶다.」라고 말씀하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우선 우리 자신이 지역의 역사, 문화가 빛났던 시대를 알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.

이 단편집은 인터넷에서 공개 (※) 하고 있고 그 외에 인근 지자체의 도서관이나 학교, 전국의 도도부현립 도서관에 배포하는 등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야기의 연고지를 방문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.
여러분도 꼭 이 단편집을 읽고, 오카야마의 매력을 재발견 해 보십시오.

※오카야마현 협동사무 전자도서 포털 사이트「okayama ebooks」주소
https://www.okayama-ebooks.jp/?post_type=bookinfo&p=15863